



그러니까 상관이 당신을 심사해야 한다고요?

So the boss has to evaluate you?

조안 웨어 (Joan Ware)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2011년 10월 14일

나는 정규직 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학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관찰과 평가를 받아야 했다. 나는 유치원 오후반을 가르쳤는데, 교장선생님은 자신의 일정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관찰 시간 외에는 나를 따로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평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마다 심히 긴장하곤 했다.

어떤 친구가 내가 마음을 갈아 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약간의 영적 통찰력 주었다. 그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해야 하는 유일한 나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했다. 누가 같이 있건 또는 무슨 일이 진행 중이건 **하나님**께 경청하고 복종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어야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평가자, 즉 유일한 상관이다. 나는 항상 **그분**만을 만족하시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내가 교장선생님을 마치 친구를 내 집에 환영해 맞아들이는 것처럼 내 교실 안으로 환영해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의 교장선생님이 친구 일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창조물 일부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분별력과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특성이 그 사람 안에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도 동일한 것들이 내 안에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왔을 때 교실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정한 활동에 관계 없이, 더한 평정한 마음, 이지, 유머, 명료함이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빛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정성을 들인 계획을 짜는 것에 대한 걱정을 그만 둘 수 있었고 나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지속적으로 오는 아이디어들에 맞춰 대응할 수 있었다.

나는 걱정하기를 정말로 그만 두었고, 유일하고 위대하신 교사이신 **하나님**께 경청하고 복종하는데 있어 일관성이 있도록 참으로 노력하였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여야 할 것인지 나를 이끌어 주는 나날의 직관력에 대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어느 오후, 그 날은 매우 영성한 계획만을 짜놓았었는데, 내가 놀이터에서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기 약 이분 전쯤에 교장선생님이 갑작스레 내방에 들어왔다. 그는 조금 후에 나를 관찰하기 위해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처음에 나는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냥 믿고 계획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이 유일한 마음, 즉 아이디어들의 유일한 근원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바로 여기 계신다.

교장선생님이 도착하였을 때, 나는 마음이 편한 상태이었으며 그를 환영해 맞아들였다. 그를 포함한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즐겼다. 학습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풀려나갔고, 내가 미처 생각조차 하지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

않았던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은 매우 착하게 굴었고, 우리 모두에게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누가 뭐라 하든 관계 없이 나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좋은 행사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중, 평가를 위한 토론 시간에, 나는 교장선생님이 그가 보았던 것에 매우 만족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해야만 하도록 되어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충실하게 경청하고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기를 계속하는 중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상관이시다. 그것을 안다는 것이 업무평가를 훨씬 즐길만한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